

# 교육발전특구 사업 설명회

### 익산시, 시민·학부모 공감대 형성... 주요 추진 사업 설명·질의응답

익산시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시민 학 부모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. 시는 7일 모현도서관에서 교육발전 특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. 설명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 시 친절행정장,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,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,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. 설명회는 공모 준비부터 선정까지 90일간의 여정을 담은 영상 시청으로 시작했다. 이어 돌봄·교육·취업·정주를 골 자로 하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.

주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 소하고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사업 방 향성에 대해 공유했다.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가 교육청, 대 학, 지역기업, 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 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역 신과 인재 양성·정주를 위한 종합 지 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. 유아기부터 초·중·고등 대학까지 연계해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를 통해 길러진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 익산시는 △학교폭력 교육인재망 구 축 △학생치유회복 맞춤형 교육 △이 리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△원광보건

고·진경여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추진 △의료분야 대학 선호학과 지 역인재전환 확대 △글로벌 보건의료 인력양성 등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. 이로써 익산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 을 반영한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지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됐다. 정현을 익산시장은 "익산시가 교육 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"며 "시민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발전특구로 정 식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을 집중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 /익산=이재훈기자



익산시가 지역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입 혜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.

## 대학 신입생, '익산시민 혜택'

### 시,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·각종 청년 혜택·다이어ום 정책 등 소개

익산시가 지역 대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전입 혜택에 대한 대대적인 흥 보활동에 나섰다. 이날 학생들이 전입신고와 지원금 신 청에 제약이 없도록 찾아가는 전입 창 구를 운영해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전입 신고를 도왔다.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 소 통민원실을 운영해 학생 편의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학생들이 행정 복지센터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하면서 전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시 관계자는 "익산시는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해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,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 영하고 있다"며 "새학기를 맞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 다"고 말했다. /익산=이재훈기자

와 원광보건대 캠퍼스를 돌며 주소전 입 학생 지원금 홍보에 나선 바 있다. 이날 학생들이 전입신고와 지원금 신 청에 제약이 없도록 찾아가는 전입 창 구를 운영해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전입 신고를 도왔다.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 소 통민원실을 운영해 학생 편의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학생들이 행정 복지센터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하면서 전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 시 관계자는 "익산시는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해 주소전입 학생 지원금,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 영하고 있다"며 "새학기를 맞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 다"고 말했다. /익산=이재훈기자

## 군산문화재단 '2024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' 공모

### 전년 대비 100% 예산 증액, 선정자 최대 1000만원 지원

올해 출범한 군산문화재단(이사장 김임준 이하 재단)이 8일 '2024 문화 예술진흥 지원사업' 공모를 진행했다.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은 신인·지 역·창년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강화 하고 군산시민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창작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. 이번 공모에선 △신인·지역 예술 가 창작지원사업, △시민 아이디어 창 작공연 지원사업 △창년예술가 창작 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별 군산 관내 문화예술인·단체를 선정 하고 최대 1,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한다. 먼저 신인·지역예술가 창작지원사

업은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관 련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. 시민 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군산시민 누구나 가능하 며 선정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품 제작 및 발표의 기회를 제공한다. 마지막으로 창년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군산시 창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, 예 술작품 제작을 지원한다. 해당 사업은 기존 군산에서 운영 하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, 올 해부터 문화재단으로 이양되어 운영 된다. 단 운영 주체가 바뀐 만큼 세부 사항에는 다소 변화가 있다. /군산=김판근 기자

기존 총지원금이 1억5,000만원에서 3 억으로 100% 증액되었으며, 지원 자격 도 기존 1년 이내 1회 이상 예술 활동 에서 3년 이내 1~2회 이상 예술 활동 으로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. 또한 접수 방법도 현장 방문 접수에서 현 장·메일 접수창구도 계속 받아 편의 성을 개선하였다. 접수 기한은 오는 15일부터 22일 오 후 6시까지며,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 여 접수하면 된다. 군산문화재단 김임준 이사장은 "앞 으로 군산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사 업을 발굴·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"라며 "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기 반 조성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"고 전했다. /군산=김판근 기자

## 군산시, 기술력 있는 유망강소기업·강소기업 모집

군산시는 지역 경제발전과 산업 생 태계의 성장을 주도할 유망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'군산형 유망 강소기업·강소기업' 을 신규 모집하고 있다. 군산시가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하 여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·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 도록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.

특히 지역경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내실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, '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지원 사업'을 졸업한 기업 중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소기 업을 선정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. 본 사업은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및 현장평가 와 2단계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유망 강소기업 4개사, 강소기업 1개사를 신 규 선정할 예정이다. /군산=김판근 기자

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△군산시에 본사(공장) 또는 주사업장 이 소재하고 △창업한 지 3년 이상 △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재무제표 기준 최근 3년 결산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 이다.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, 공정개선,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5천 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. /군산=김판근 기자

## 익산시, 구직자·농가 연결 인력중개센터 운영

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 려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농촌근로 참여를 유도해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. 시는 영농철 농촌지역의 인력부족 해결을 돕기 위해 '익산시청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'을 재개한다고 7일 밝 혔다.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와 농촌 일자리를 필요로 하 는 구직자를 수수료 없이 중개한다. 임금은 근로시간, 작업내용 등에 따라 농가와 근로자가 사전 협의해 결정한 다. 센터를 통해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상해보험 무상가입 및 직접 출·퇴근 시 교통비를 지원한다. 신규 참여자를 채용한 농가에는 작업 숙련도 향상을

위한 현장실습교육비를 지원한다. 모집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상시 로 접수하며, 한걸음 북부청사에 위치 한 익산시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 청하면 된다. 자세한 사항은 바이오농 업과(063-859-3782)로 문의하면 된다. 시 관계자는 "농촌 인구 감소 및 고 령화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"이라며 "도심 지역 노동인구가 투입돼 농가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 한편, 2022년부터 운영한 익산시청 농촌인력중개센터는 현재 300명 이상 의 인력풀을 구축했다. 농촌근로 참여 자 모집 확대를 위해 현수막 게시, 아 파트 전단 배부 등 홍보 활동을 활발 하게 전개할 예정이다. /익산=이재훈기자

## 지역 소식통

### 익산시, 친절행정 조성 '친절키맨' 발대식 개최

익산시가 시민과 직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친절 행정 조 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 시는 7일 국가무형문화재 통 합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 익산 시 친절행정의 새로운 소통창 구 역할을 위한 '친절키맨 추진단' 발대식을 개최했다. 직원 주도적 친절분위기 확산 의 일환으로 결성된 '친절키맨 (KI Man) 추진단'은 Kind(친절)와 Iksan(익산)의 약자를 합친 단어로, 키맨(Key Man)은 조 직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 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. 각 부서에서 추천된 88명의 친절키맨은 부서별 친절 저해 요인을 진단,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·캠페인·홍보 활 동에 참여하는 등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. /익산=이재훈 기자

### 군산시,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군산시(시장 김임준)와 국립 군산대학교(총장 이상호)는 '2024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' 참여기업을 20일까지 모집한다. 선발 예정 기업은 전 북특별자치도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총 15개사 내외이며 기업 당 최대 6천만원을 지원한다. 성장 가능성 등의 선정 기준 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는 사업 자금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시 장 진출을 위한 △관료계적(마 케팅) △네트워킹 △투자유치 지원 △컨설팅 등의 특화 프로 그램을 제공한다. 군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 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5년 이내 창업기업이 겪는 창업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것 을 돕는 한편, 지역경제 활성화 에도 기여할 예정이다. 일반 분야 및 특화 분야(미래 모빌리티, 빅데이터·AI, 친환경·에너지)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기업은 모두 지원 가능하 며, 특화 분야에 관련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은 지역 및 대학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다. /군산=김판근 기자

전북의 역사·문화 유산
전주매일 캠페인

#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

## 구 군산세관 본관

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.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.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.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, 내부를 장식했으며,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.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 이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.